정보

Peter Ilyich Tchaikovsky: The Tempest, Op. 18
작곡가: 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작품: The Tempest (Буря), Op. 18
형식: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 교향적 환상곡
작곡: 1873년 8월부터 10월까지
초연: 1873년 12월 7일 (구력)/19일 (신력), 모스크바 러시아 음악협회, 니콜라이 루빈스타인 지휘

IMSLP: The Tempest, Op. 18

Wikipedia: The Tempest (Tchaikovsky)

차이콥스키의 The Tempest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무대에서 재현하는 음악이 아니다. 이 곡은 성악이나
대사 없이 관현악 한 악장 안에 폭풍과 마법, 미란다와 페르디난드의 사랑, 프로스페로가 마법을 포기하고 섬을 떠나는 결말을 압축한다. 바다에서 출발해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구상은 인물별 장면을 늘어놓기보다 , 섬 전체가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큰 호흡을 만든다.

폭풍을 어디에 둘 것인가
1873년 초, 비평가 블라디미르 스타소프는 차이콥스키에게 작품의 소재가 될 만한 세 가지 구상을 보냈다. 차이콥스키는 그중 The Tempest를 택했지만, 답장에서 폭풍을 꼭 그려야 하는지, 넣는다면 어디에 둘지를 되물었다. 스타소프는 바다가 작품의 처음과 끝을 감싸고 초자연적인 힘이 갑자기 폭풍을 일으키는 구상을 제안했다. 두 사람의 서신을 보면 폭풍은 단순히 극적인 효과를 더하는 장면이 아니라, 음악의 큰 흐름 안에서 자리를 찾아야 할 사건이었다 . 이 작품은 스타소프에게 헌정되었지만 , 차이콥스키가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쓰기보다 폭풍의 위치를 함께 검토했다는 점도 서신에서 확인된다.

완성본에 붙은 프로그램은 바다와 프로스페로의 마법에서 출발한다. 아리엘이 명령을 수행하고 폭풍이 일어난 뒤, 난파된 페르디난드가 미란다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이어 아리엘과 칼리반이 등장하고, 미란다와
페르디난드의 사랑은 더 큰 열정으로 자라난다. 끝에서는 프로스페로가 마법을 버리고 섬을 떠나며 바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순서는 희곡을 대사와 사건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바다와 마법, 사랑, 결별을 음악으로 엮기 위한 압축된 안내다. 작품은 F단조, 631마디의 한 악장이며, 악보에는 Andante con moto 에서 Allegro moderato 로 이어지는 빠르기 표기가 놓여 있다. 프로그램의 사건마다 별도 악장이나 공식 장면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악장 안의 음향
이 곡의 인물과 풍경은 목관 ·금관 ·현악의 대비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다만 특정 악기가 한 인물을 고정적으로 맡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 공연 해설과 연주 비평이 제시하는 청취의 실마리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안내문은 낮은 현악과 호른의 도입부, 폭풍을 부르는 듯한 금관, 점차 넓어지는
사랑의 선율을 차례로 짚는다. 톰 매노프는 구스타보 두다멜의 녹음을 악보와 함께 들으며 호른을
프로스페로와 , 높은 음역을 아리엘과, 낮은 현악을 칼리반과 연결했다. 이런 해석은 악보에 적힌 배역표가 아니라, 음색과 음역에서 프로그램을 읽어 내는 한 가지 방법이다.

폭풍의 규모만으로 곡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다. 큰북과 심벌즈, 금관의 강한 울림이 폭풍의 음량을 키운 뒤에도 현악과 목관은 부드러운 선율을 이어 간다. 사랑의 음악은 폭풍과 대조되는 정서적 중심이 되며, 다시 등장할 때는 시작과 끝을 잇는 바다의 구상 속에 놓인다. 그래서 연주자는 강한 절정뿐 아니라 폭풍 전후의 음량과 속도, 음색의 변화를 어떻게 이어 갈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는 악보의 프로그램을 실제 소리로 설득력 있게 만드는 연주상의 과제다.

편성과 연주 시간
차이콥스키는 넓은 관현악 편성을 사용했다.

목관: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B♭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F 호른 4, F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타악기: 팀파니 3, 심벌즈, 큰북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연주 시간은 해설과 녹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은 약 20분, Tchaikovsky Research 는 약 25분으로 안내한다. 따라서 실제 연주 시간은 대략 20–25분으로 보면 된다. 템포와 연주 방식에 따라 길이는 달라진다.

사라진 자필 총보와 출판
완성 총보의 자필은 1870년대에 분실되었다 . 러시아 국립음악박물관 (옛 글린카 박물관)에는 총보 사본이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쪽만 차이콥스키가 직접 썼다. 러시아 국립도서관에는 이 사본과 별개로 작곡 과정의 거친 초고가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초고와 총보 사본을 하나의 문서처럼 설명하거나 , 박물관 소장 사본 전체를 작곡가의 자필로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에두아르트 랑거가 편곡한 피아노 네 손용 악보는 1875년 3월 먼저 출판되었다 . 관현악 파트는 1877년 4월, 총보는 같은 해 7월에 나왔다. 1891년 제 2판에는 차이콥스키가 프레이징과 빠르기, 셈여림을 고친 내용이

반영되었다 . 작곡가는 초판 출판 뒤에도 연주자가 참고할 표현 지시를 다시 다듬었다.

초연 이후의 호평과 자기비판
초연은 모스크바 러시아 음악협회의 1873년 12월 연주회에서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의 지휘로 열렸다. 1874년 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에두아르트 나프라브니크가 지휘한 두 번째 공연이 이어졌다. 스타소프는 이 공연을 앞둔 리허설 뒤 아리엘과 칼리반, 사랑 장면, 관현악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1879년 파리 공연 뒤 차이콥스키는 나데즈다 폰 메크에게 작품이 너무 길고 삽화가 많으며 균형과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썼다. 며칠 뒤 다른 편지에서는 실제 야유가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비평가 스타소프의 호평과 작곡가 자신의 불만은 서로 다른 판단으로 함께 남아 있다.

2011년 두다멜 음반을 둘러싼 평론에서도 관점은 갈렸다. 매노프는 녹음에서 인물 묘사와 관현악 색채를
생생하게 들었지만, 앤드루 클레먼츠는 같은 음반에서 작품의 고르지 않은 짜임과 느슨한 연결을 지적했다. 두 평론을 나란히 읽으면 장면의 매력과 전체 구성의 응집력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장면을 살리면서도 한 악장의 흐름으로 잇는 일은 이 작품을 해석할 때 남는 중요한 질문이다.

주요 자료

Tchaikovsky Research, The Tempest: 작곡 시기, 조성, 악장 ·빠르기 표기, 편성, 프로그램,
공연과 출판 연혁.
Tchaikovsky Research, Letter 286: 스타소프의 소재 제안에 답하며 차이콥스키가 폭풍의 필요와 위치를 묻는 서신.
National Library of Russia, The Tempest manuscript exhibition: 작곡가의 자필, 총보 사본과
별도 초고의 관계.
Los Angeles Philharmonic, The Tempest: 작품 길이와 인물 ·악기 음색에 관한 청취 안내.

Blue Ridge Public Radio/NPR, Tom Manoff, “Tchaikovsky: Meet the Bard”: 두다멜 녹음을
악보와 함께 들은 평론가의 청취와 평가.
The Guardian, Andrew Clements, “Tchaikovsky: Shakespeare – review”: 같은 음반에 대한 다른 평가.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5:59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5:59 UTC by 안준영